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릴레이 인터뷰



조용환  
197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박  
학사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  
사  
1989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박 교  
수

본지에서는 지난 10호부터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일곱 명의 교수 각인으로부터 교육상 수상 소감과 더불어 가르침에 대한 소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범대학의 조용환 교수를 만났다.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그저 열심히, 묵묵히 사는 것이 좋아서 본래 상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교육상을 받고 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연구 풍토 진작에만 치우친 감이 있었는데 교육 부문을 격려하는 취지의 이런 상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바퀴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만 상호 다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 못지않게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상을, 그것도 첫 회에 수상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이 생기고, 지금까지의 제 행보를 되돌아보면서 더 노력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수상의 계기나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강의실에서의 교육, 학생들과 함께 해온 학문공동체 활동, 그밖에 대외적인 교육 활동들이 그것입니다.

첫째로, 교수로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최우선의 일로 생각하고 정성을 쏟는 것 이바로 수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수업이 있는 날은 꼭 정장 차림을 합니다. 그렇게 단정한 옷을 꼴라 입으면서 마음을 가다듬 습니다.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대 다수의 만남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 한명 한 명을 일대일로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학교가 좋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개성이 다다르고 요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일대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활용하는 방식이 과제물입니다. 저는 과제물을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e-Class를 운영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댓글 이나 댓글을 달고 질문에 답해줍니다.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고도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방학 때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관악산에도 가고 하면서 공동 학습을 계속한 것이지요. 또 하나, 저의 수업시간에는 공동 과제가 많이 부여됩니다. 팀워크가 요구되는 과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실상 우리의 생활세계 는 함께 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과제에서는 성적 평가 가 간혹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교양과목의 어려운 점이 바로 성적 문제입니다. 절 대평가가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학점 경쟁을 하지 않고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있을 텐데 학교의 평가체제 자체가 개별화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둘째로, 제가 운영해온 학문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삶과 학문과 교육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교육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육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 다.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이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 환경이 됩니 다. 저는 3년 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기오재(寄傲齋)’라는 이름의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의 고전이나 최근 연구물들을 함께 읽

으면서 글쓰기 지도를 하고 학자로서 준비해야 할 자세와 능력을 수련하고 있습 니다.

셋째로, 학교에서의 강의나 위에 언급한 학문공동체 이외에 저는 질적 연구와 관련된 강의·집담회·워크숍·학회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적 연구를 너무 좋아하고 즐거이 하는 까닭에 다른 일은 몰라도 질적 연구에 관한 일은 우선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교육적 체험을 많 이 합니다. 그밖에도 일종의 봉사활동으로서 학교 밖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하는 것입니다. 교실 강의와 더불어 학문공동체, 그리고 질적 연구 등 을 계속해서 하되 좀더 성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바로 교육이나 연구가 삶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간의 통합 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본래 한 덩어리인 것을 할 수 없이 편의상 나누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일 뿐인데, 학교 교육에 이르면 모든 것이 분절되고 산산조각 이 나고 맙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공동의 모색도 부족합니다. 그 점에 서 교수 상호간에도 편하게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 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